

## 현실요법을 적용한 남성의 가정생활분석 - 가정생활진단을 위한 상담과정 적용 시도 -

최 연 실(상명대학교 교수)

이 연구의 의의는 연구자가 밝힌대로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시도되지 않았던 특수한 대상과 영역에 현실요법을 적용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분석함에 있어서 상담이론 중의 하나인 현실요법에서 개발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 연구는 상당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연구에서 시도의 참신성만큼이나 그에 따르는 고민과 부담, 그리고 한계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이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부제에서는 기혼남성의 가정생활을 진단하는 데 있어 상담과정,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William Glasser가 창안한 현실요법의 상담체계에 기초를 둔 상담과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혼남성들의 가정생활이 어떤 측면에서,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부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보다는 평면적으로 연구를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이 연구는 다소 광범위한 연구영역에 면접 내용의 분석틀로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현실요법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내용의 조직화나 접근방법의 정교성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을 ‘진단’하는 데 현실요법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진단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면 이에 사용되는 도구나 틀은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엄밀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상담이론의 개념을 가정생활 진단 내지는 분석에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한편으로는 가능성을 시사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즉 상담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그에 대한 해결수단으로서 채택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연구에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 인식이나 지각을 호소하지 않는 일반 기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상담이론의 개념들 적용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넷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분석틀이다. 이 연구는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면접대상의 면담 내용을 주제별로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기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피면접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현실요법의 WDEP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족관계나 자원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영역의 주제별 분석에서는 이러한 WDEP체계에 따른 분석이 다소 애매하고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의 독특성이나 중심적인 특성은 현실요법의 적용에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피면접자와의 면담자료들을 자신이 채택한 분석틀에 따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의 한계점을 고려하고 보완을 시도하는 것은 비단 이 연구자만의 몫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 연구와 같은 창의적인 발상에서 출발하는 문제의식을 더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하기를 기대하며 이 토론의 끝을 맺고자 한다.